

人口問題와 家族計劃

保健社會部 保健局長 金 鐸

1. 問題의 擡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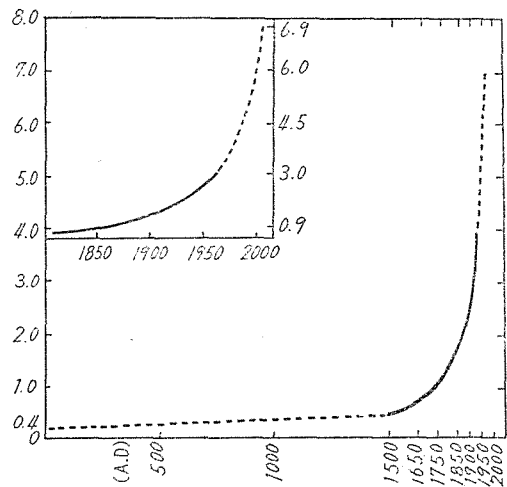
人口問題와 家族計劃의 命題가 人類앞에 擡頭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現代科學에 依해서 人間이 自然을 克服하기 以前에는 多産多死의 人口形態이어서 人口調節의 問題가 야기되지 않았었다.

人類가 地球에 棲息해온 期間에 對해서는 明確히 아는바 없지만 대개 5萬年 내지 20萬年의 범위내에 들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며 더 오래인 것으로 보는측도 있다. 如何든 地球上에서 사람의 數가 2億5千萬에 達하기까지엔 數千數萬年이 所要될 것만은 분명하다. 一般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資料에 依해서 人口統計學者들이 推計한 人口의 歷史를 보면 西紀元년에 1億, 이것이 다시 倍增하는때는 무려 1650年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2百年, 80年, 45年, 35年이란 짧은 期間 內에 地球上에 人口는 倍加하여 현재 33억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西紀元년에 2億5千萬이던 世界人口가 5億으로 된 것이 巡禮者들이 「매서츠크츠」 植民地를 發見한 16세기이다. 世界人口가 맨처음 5億에 達하기까지엔 數百世紀가 걸렸으나 다시 두번째 5億에 達하기까지엔 겨우 2世紀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美南北戰爭 勃發直前의 地球人口는 約 10億이었다. 5億의 人口가 追加되는 期間은 갈수록 대폭 짧아졌으며 最近의 5億이 追加되어 30億을 돌파한 記錄은 불과 10年 남짓했고 現在의 人口成長率

이 계속된다면 겨우 6,7年 내에 40億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世界人口의 問題는 美大陸에 첫 移民이 발을 딛은 때에 고개를 들어 20世界前半에서부터는 거의 垂直으로 上昇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림 1> 世界人口의 成長 (單位 10億)



<西紀元년부터 1960년까지의 推計된 世界人口 및 2,000年度까지의 推計人口表>

2. 家族計劃運動의 歷史

家族計劃의 歷史는 크게 두 潮流로 나누어져 오다가 近來에는 대개 세가지 方向의 性格으로 區分지어지고 있다.

그 첫째는 人口增加를 抑別하기 위한 것으로써 人口問題의 立場에서 出産을 制限하려는

運動이다. 1798年 英國의 學者「말사스」의 「人口論」의 筆頭로 하여 提唱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말사스」는 여기에서 人口는 幾何級數로 增加하고 食糧은 算術級數로 增加하므로 必然코 人口問題가 提起될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 問題를 人間의 理性으로써 解決하여야 한다고 主唱하였으나 具體的으로 禁欲과 晚婚 등의 實踐키 어려운 方法에 依해서 問題의 해결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다가 1920年代에 「新말사스」主義가 高唱되면서 結婚한 夫婦間에도 避妊에 依해서 어린이의 數를 調節해야 한다는 主張을 세우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마가렛·생거」여사는 人口抑制라기보다는 夫婦와 家庭의 幸福과 健康이라는 個人的理由에 依해서 어린이의 數를 調節해야 한다는 人道主義的運動이 主唱되기에 이른 것이 그 두번째 潮流이다.

世界第二次大戰以後 現代醫學의 惠澤이 급작스레 後進國에까지 미치게 되면서부터는 世界人口問題의 樣相이 또 달라져서 名實相符 世界的인 問題로 認識되고 이에 對한 各國의 對策도 多少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歐美先進諸國에서는 母子保健이라는 見地에 主眼을 두고 있으며 後進國에서는 人口成長抑制에 力點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두가지 立場을 같이한 中道의 方向에서 이 運動을 施策化한 것이다. 한便으로 人口增加를 調節하는 經濟的意義와 다른 한편으로는 個個人的 幸福과 國民의 健康管理이라는 公衆保健의 意義를 지니고서 第1,2次經濟開發個年計劃의 一環으로 保健社會部 主管下에 이 事業이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3. 世界의 動向

「유엔」의 모든 會員國에서는 各國이 當面한 人口問題의 심각성을 是認하여 제나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이에 關한 원조계획을 새로히 채택하게 되었다. 물론 會員國에 對한 원조는 出產率을 抑制하는 것을 첫째 이유로 삼고 있으나 保健管理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65年 7月 1日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수태조절을 위한 技術원조를 제공하기를 加결하고 「덴마크」와 「이락」 및 인도에 혼련과 자문역을 맡았고, UN-CEF에서도 WHO에서 결정했던 사항과 똑 같은 사항을 可決하고 人口調節에 對한 活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한편 「유엔」에서는 1965年 9月 「벨그라드」에서 세계 人口회의를 열어서 깊은 關心을 表했고 계속해서 人口問題에 對한 支援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國際開發處에서도 이 問題의 解決을 爲해서 活潑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특히 「실론」과 「파키스탄」에 提供한 원조는 特記할 만하다.

美國의 優秀한 財團들은 오래전부터 앞을 다투어 後進國 또는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들에 적지 않은 元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이젠하워」, 「케네디」 이래에 關心을 明白히 한 美國政府에서도 1965年 1月 4日 「존슨」대통령의 年頭敎書에서 『극도로 팽창하는 人口問題와 이의 여과로 급속히 줄어드는 資源을 開發하기 爲해서 새로운 知識을 促求해야 겠다』고 말하고 外援項目에 正式으로 삽입하였다. 海外의 各大使館에서 人口問題에 關한 援助와 指導에 나섰으며 「존슨」대통령은 그 해 1년에 人口問題에 緊迫性을 「유엔」에 호소하였다. 「존슨」大統領은 「유엔」창립 20주년 記念式典에서 이 땅 위의 모든 問題들 中에서도 幾何級數的으로 팽창하고 있는 人口問題의 解決은 이 世界가 當面하게 될 어떠한 挑戰보다도 훨씬 深刻한 問題라고 말하면서 『經濟開發計劃에 四百달러를 投資하는 것보다는 人口調節에 단 5달러를 投資하는 것이 훨씬 効果的이라』는 意味深長한 말을 했다. 3개월 後에 있었던 「벨그라드」世界人口大會에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政府는 벨그라드 회의를 全적으로 支持하며 限定되어 있는 資源과 人口와의 均衡을 爲해서 애쓰고 있는 「유엔」의 各機構에 對해서 眞心으로 感謝한다. 많은 專門家들이 보다 심오한 知識을 적용해

서 이 問題의 解決에 힘써 줄 것을 바란다』
고 호소한 것이다.

이와 步調를 맞추어 後進國과 開發途上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事業을 國營化하
고 있으며 印度, 「파키스탄」에서는 심지어 中
央政府機構에 家族計劃省을 獨立運營하고 있
는 實情이다.

4. 韓國人口의 成長

韓國人口問題의 性格은 人口學의 見地에서
는 가장 典型的인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自然增加率도 世界에서 으뜸을 겨루는 실정
이었으며 땅에 比한 人口密度는 世界에서 세
번째로 비좁다.

「三國遺史」나 「東史遺補」 등의 考證에 依하
면 高句麗初期의 韓國人口는 不過 三萬, 그로
부터 約 千年後인 李朝初期에 그 10倍가 되는
30萬으로 불었다가 李朝末葉에 와서 1千3百萬
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增加는 그 오랜
歲月에 비기면 그리 대단치도 않다.

이것이 不過 約 40年이 지난 解放直前에 2
倍로 늘어 2천6百萬人口를 헤아렸다. 勿論 이
數字는 南北韓 모두 합친 것이다. 그런 것이
解放後 20年이 된 오늘 南韓만에서 三千萬을
돌파, 이 엄청난 人口가 지금 南韓의 좁은 땅
에서 붐비고 있는 것이다.

現在 世界人口의 年平均增加率을 2.0%로
보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그것은 지난 5년간
약 2.7%였다. 1962年, 우리 政府에서 家族計
劃事業을 着手할 때의 3.0%에 比하면 그간
推進한 家族計劃事業의 成果가 컸다고 評價되
고 있지만서도 아직 現在의 增加率이 계속된
다면 每 25年에 우리 人口는 倍增하게 되며
여유있게 보아도 西紀 2千年에는 7千萬을 突
破할 것이 豫測되는 것이다. 人口學者들에 依
하면 이를 放置할 경우 앞으로 100年後엔 우
리 人口가 6億을 突破할 것을 警告하고 있는
데 그때의 人口密度는 約 5萬4千名이라는 엄
청난 공포의 社會를 避할 길이 없게 된다.

5. 韓國의 家族計劃事業

이와같은 人口問題에 對備하여 保健社會部
는 1961年 9月 家族計劃事業을 國家施策으로
採擇할 것을 閣議에 上程하여 政府 經濟開發
五個年計劃事業의 一環으로서 承認을 얻게 되
고 1962년부터 이를 推進하기로 議決함에 따
라 家族計劃事業 10個年 長期計劃을 推進하게
된 것이다.

10個年長期計劃의 目標은 이의 基準年度인
1971년까지 事業着手當時의 人口增加率 約 3
%를 2.0%로 떨어뜨리는데 두고 다시 이와
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20歲~44歲
의 可妊夫婦의 約 3分之1에 該當하는 150萬의
家族計劃實踐者를 確保하기로 하였으며 그 具
體的인 方案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이를 推
進中에 있다.

루우프施術	1百萬
男子不妊術	15萬
其他避妊法定規使用者	15萬

이로써 政府補助에 依하여 家族計劃을 實踐
하는 夫婦 31.5%, 自費負擔 實踐者 13.5%
합쳐 45%의 夫婦로 하여금 家族計劃을 實踐
토록 함으로써 1971年에 人口增加率 2.0%로
鈍化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人口統計學者 「노트스타인」의 主張에
依하면 대체로 可妊婦 45~55%에서 家族計劃
을 實踐하는 人口의 成長은 대체로 적정한 것
이라 하였으나 가까운 日本의 경우는 高度의
經濟成長下에서도 1%의 人口成長을 지탱하
고 있는 실정에 감안한다면 우리 目標을 2.0
%를 1971年에 成就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0%의 人口成長率
로써도 그 人口는 每 45年마다 倍增하게 되는
것이며 1%의 成長率이면 倍增하여 70年이
所要된다.

現在 南韓에서의 年人口增加數는 約 80萬으
로서 1年을 억제하는데 따른 國民總消費의 節
約은 거의 모든 面에서 天文學的 反對給付
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人口調節에의 投資는

眞正코 確實한 經濟投資이며 諸般努力에 앞장서 가야하는 가장 重要한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投資한 事業資金은 1966年, 67년에 年 4億2千3百萬원이었고 現年度는 이보다도 적은 資金이 配定되었다.

勿論 意欲인 增産과 建設事業으로 財源이 넉넉치 못한 政府事情下에서 이만한 額數가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모름지기 앞으로 이 事業에의 投資에는 인식하지 않은 範圍까지 意欲의 支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現在로서도 政府에서는 10年計劃의 目標를 앞당겨 達成코자 努力하고 있거니와 이 事業의 1年早期達成은 他部門의 經濟開發을 그 이상 수월케 할 것이어서 生産投資 못지 않게 出産抑制投資에 過敢한 配慮가 要求되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우리 國民의 呼應

1962년에 着手된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은 처음 한 두 해는 事業網의 組織과 要員의 養成 配置에 置重되었고 實上 1964年以來 本格화된 事業의 成果는 여러 測面에서 評價되고 있다.

우선 1966年 10月 1일에 실시한 人口「센서스」의 結果 成長率이 6年平均 2.7%로 鈍화된 데다 年末常住人口 調査結果에 따르면 近年에 올수록 괄목할만한 鈍化를 가져온 것만은 事實이다.

1964年 以來 保健社會部에서 실시해 오는 家族計劃全國標本調査에 依하면 可妊婦의 家族計劃에 對한 知識, 態度, 實踐率이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世界各國에서 韓國의 家族計劃事業成果를 크게 선망하는 結果를 가져온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지극히 多幸한 일이다.

家族計劃을 아는 可妊婦의 數는 1964年の 71%에서 84%, 88%, 89%로 계속 上昇 傾向을 보이고 있고 避妊方法을 알고 있는 女性이 1964年の 51%에서 65%, 72%로 每年 增加하여 67년에는 84%에 達하고 있다. 이 調査結果에 따르면 家族計劃을 贊成하는 可妊

婦가 86%로 나타나고 있으며 1964年度 調査時 不過 12%의 實踐率에 不過하던 것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22%, 27%, 28%의 實踐率까지 事業의 成果를 보고 있으나 1971年度까지의 目標 45%에 견주어 보면 아직 未洽한 感이 없지 않다.

家族計劃을 贊成하고 또 그 實踐을 希望하면서도 實踐치 못하는 女性들은 대개 다음의 理由에서이며 이 또한 앞으로의 加一層의 勞力과 財政의 뒷받침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땅은 많으나 아들이 없어서, 또는 모자라서 實踐을 주저하는 夫婦가 相當하다.

둘째 現代醫學이 生命을 保護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現在의 生存兒에 對한 保障에 自身이 없어 餘分의 子女를 가지기 爲해 家族計劃 實踐을 遲延하고 있다.

셋째 當장 實踐키를 願하여도 農漁住民들 中엔 避妊서비스機關이 너무 遠距離에 있어서 實踐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7. 앞으로의 方向

대체로 以上 세가지의 原因을 克服 한다면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은 目標를 무난히 達成할 것이며 이것이 解決되지 않는다면 家族計劃事業은 어느 限界點에 가서 장벽에 부딪칠 우려 조차 없지 않다. 따라서 第2次 5個年計劃에는 이런 點에 많은 配慮를 하고 있다. 問題는 財政的 技術的 支援이 뜻하는 바와같이 되느냐에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해둔다. 위의 세가지 理由 中에서

첫째는 社會的 價値觀의 改革이라고 至難한 問題이긴 하지만 民法上 男女平等이 保障되어 있고 韓國人의 價値觀은 놀라리만큼 急「템퍼」로 變遷하고 있다는 것이 社會學者들이 共通된 見解이듯 性偏愛의 傾向도 점차 불식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다만 앞으로의 啓蒙活動의 內容이 이 方面에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餘分子女의 生産觀念을 抑制하기 爲하여 政府로서는 醫療의 惠澤을 全國民에 고

루 펴고 일단 出生한 아기의 健康管理에 손을 펴는 方針으로 있다. 이것은 알맞게 낳아라기에 앞서 先保障의 課題이기도 하다. 따라서 第2次 5個年까지는 全國 各面에 保健支所를 設置하여 出産介助로부터 母子保健을 管理하는 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母子保健없는 家族計劃은 成功을 期約할 수 없으며 이것이 겸비한 위에서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序頭에서 指摘한 바 韓國家族計劃事業의 性格이 人口問題의 見地에선 經濟的 意義와 公衆保健과 人道主義的 見地를 함께한 中道の施策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母子保健을 바탕한 家族計劃事業이라는 말이다.

세째 醫療施設과 遠距離에 사는國民들에 對한 서비스를 提供하기 爲하여 앞으로 移動서비스 시스템을 強化할 것인바 現在 이 計劃에 따라 外援機關들로부터 車輛이 支援되고 있는 段階에 들어서 있다. 늦어도 今年內에 現在의

機動力위에 2百臺以上車輛이 支援되어 全國保健所 單位로 管內移動서비스를 活潑히 하여 國民의 健康管理을 爲하여 政府로서의 對國民 서비스에 最善을 다할 計劃이 推進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國民의 自律的 參與를 爲해서 今年度에는 外援資金을 渡入, 全國 各郡 地域 里洞單位에 家族計劃 어머니會를 造成하게 되며 避妊方法에 있어서도 現代科學이 提供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들을 總網羅해서 支援할 方針이어서 此後의 家族計劃事業도 계속 圓滿한 推進을 期約하고 있다.

다만, 家族計劃事業은 國民 各個人의 自律的 實踐意志와 政府로서의 어느 限界까지의 支援이 調和를 이룰 때 그 成果는 스스로 오는 것이며 國民의 意志가 따르지 못하거나 政府의 支援이 소홀한데서는 결코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는 特殊한 事業이라는 點을 強調해 둔다.



<증가되는 人口>

<P. 27 면에서 계속>

다른다는 點에서 確實히 近代經營의 새樣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農漁村開發公社의 經營成果에 대해서는 하나의 試驗經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의 차디찬 資本主義的 經營에서 協同的인 이 類型的 經營이 果然 適者生存의 原理의 適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變則的 運營이 관을 치는 現風土에서 그 거센 바람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至大한 關心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如何든 現代經營에 있어서 科學技術을 하나의 商品인양 생각하는 風潮는 어서 速히 除去되어야 한다. 反面 部分技術에 執着하고 綜合技術을 敬遠하는 俗된 根性도 一舉에 清算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健全한 企業風土가 造成되고 科學技術이 企業과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全機能이 發揮될 수 있을 것이다.